



# 조경 및 환경녹화용 자생수종(Ⅳ)

## - 온대중·북부 기후대의 유망조경수 -

오구균/호남대 도시·조경학부 교수  
박석곤/호남대 대학원

### 글 쓰는 순서

1. 부족한 자생수종(Ⅰ)
2. 난대 기후대의 유망 조경수(Ⅱ)
3. 온대남부 기후대의 유망 조경수(Ⅲ)
- 4. 온대중·북부 기후대의 유망 조경수(Ⅳ)**
5. 도시 환경녹화용 수종(Ⅴ)
6. 산림생태계 재현·복원용 수종(Ⅵ)

우리나라 식물분포 기후대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온대기후대는 남부, 중부, 북부 기후대로 구분할 수 있다. 온대중부 기후대의 연평균 기온은 10°C~12°C, 온량지수(WI: °C·월)는 85°C~100°C의 지역으로,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와 해안을 따라서 강원도의 강릉 이남까지 이르고 있다. 온대북부 기후대는 연평균 기온이 5°C~10°C, 온량지수(WI: °C·월)가 55°C~85°C의 지역으로 온대중부 이북의 지역에서 산악, 고산을 제외한 전지역이다.

◀비슬나무(*Ulmus pumila*): 수관폭이 넓고 아름다워 녹음수로 조경용으로 이용가치가 높다.

온대중·북부 기후대에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종으로 서어나무, 신갈나무, 비슬나무, 야광나무, 풀또기, 귀룽나무, 붉은인가목, 개느삼, 복자기나무, 시달나무, 산겨릅나무, 부계꽃나무, 염주나무, 전나무 등이 있다.

### 1. 온대중·북부 기후대의 조경수 생산현황

온대중·북부 기후대에 분포하는 유망한 조경수 중 생산이 되는 수종으로 느릅나무, 마가목, 아그배나무, 복자기나무, 산겨릅나무, 자작나무, 피나무, 함박꽃나무, 흰말채, 풀또기, 전나무 등이 있다. 이중 10,000주 이상 생산되는 수종으로 자작나무, 함박꽃나무, 복자기나무, 산겨릅나무가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느릅나무, 마가목, 아그배나무, 피나무, 흰말채, 풀또기, 전나무 등은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다. 앞으로 생산이 필요한 수종으로 서어나무, 비슬나무, 야광나무, 부계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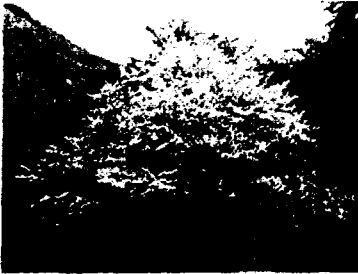
▲마가목(*Sorbus commixta*): 5-6월의 흰색꽃과 10월에 결실하는 빨간 열매는 나무 전체를 장식하여 매우 아름답다.



▲흰말채나무(*Cornus alba*): 붉은 줄기가 아름답고 열매가 희다.



▲전나무(*Abies holophylla*): 수직적인 수형이 아름다워 녹음수나 경관식재, 기조식재, 약센트식재로 이용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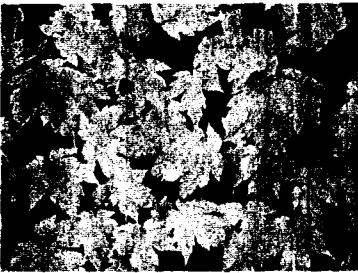
▲아그배나무(*Malus sieboldii*): 5월에 피는 흰색 꽃과 9-10월경에 붉게 익는 열매의 관상 가치가 높다.



▲쉬땅나무(*Sorbaria sorbifolia* var. *stellipila*): 6-7월경 원추형의 흰색꽃이 가지 끝에 달려 아름답다.



▲매지나무(*Berberis amurensis*): 다복한 수형과 잎겨드랑이에 달리는 셋노란 꽃이 아름답다.



▲시닥나무(*Acer tschonoskii* var. *rubripes*): 회색의 수피와 자주색의 소지, 녹색의 잎이 조화를 잘 이루며 단풍이 아름답다.



▲댕강나무(*Abelia mosanensis*): 5월에 개화하는 흰색꽃과 다복하고 지엽이 뽀뽀한 수형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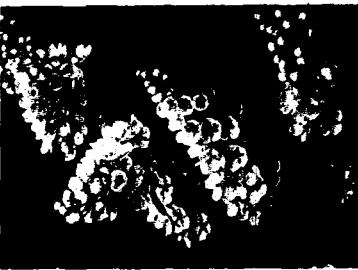
나무, 시닥나무, 염주나무, 귀룽나무, 풍계나무, 들메나무, 가래나무, 쉬땅나무, 붉은인가목, 매자나무, 매발톱나무, 댕강나무 등이 있다.

## 2. 식재기법에 따른 온대남부 기후대의 조경수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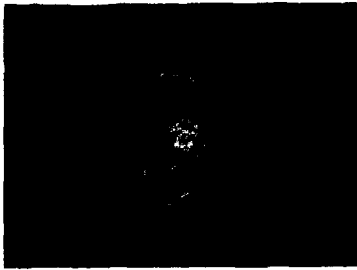
조경 식재기법에 따른 온대 중·북부 기후대의 유망한 조경수종은 표 1과 같다.

식재공간의 전체적인 경관의 틀을 짜는 기초식재 수종으로 서어나무, 신갈나무, 비솔나무, 느릅나무, 전나무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서어나무는 강한 햇볕에서는 생육이 불량하고 적윤지의 토양에 적합하며, 이른봄에 나오는 진붉은색 새순과 원정형의 수형 그리고 열매가 아름다워 기초식재, 녹음식재, 군락식재에 적합하다.

주변의 경관과 식재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주변부식재 수종으로는 오갈피나무, 개느삼, 산초나무, 흰말채나무 등을 들 수 있다. 오갈피나무는 줄기에서 독특한 향기가 나고



▲귀룽나무(*Prunus padus*): 5월에 개화하는 흰색꽃과 6-7월에 검고 둥글게 맺히는 열매의 관상 가치가 높다.



▲붉은인가목(*Rosa marretii*): 조경용으로는 거의 개발되지 않는 수종으로 5-6월에 피는 붉은 꽃과 9-10월에 익는 붉은 열매의 관상 가치가 높다.



▲개느삼(*Echinosophora korensis*): 5월경 황색의 꽃이 피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폴뜨기(*Prunus triloba*): 4-5월에 피는 분홍색의 겹꽃과 8월에 붉은 익는 열매의 관상 가치가 매우 높다.

〈표 1〉 온대중·북부 기후대 유명한 조경수

식재기법		경관식재			기능식재
		기조식재	주연부식재	악센트식재	
낙엽 활엽수	키 큰 교목	서어나무, 신갈나무, 비술나무, 느릅나무		거제수나무, 마가목, 야광나무, 아그배나무, 복자기나무*, 부계꽃나무, 산겨릅나무*, 시달나무, 염주나무, 자작나무*, 망개나무	귀룽나무, 피나무, 풍계나무, 들메나무, 가래나무, 박달나무
	키 작은 교목			함박꽃나무*	
	관목		오갈피나무, 개느삼, 산초나무, 흰말채나무	가침박달, 쉬땅나무, 붉은인가목, 풀또기, 백당나무	매자나무, 매발톱나무, 이스라지, 탕강나무
상록 침엽수	키 큰 교목	전나무			

\*대량으로 생산되는 수종

식용 및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주연부식재로 적합하다.

흥미를 유발시키는 악센트수종은 거제수나무, 마가목, 야광나무, 아그배나무, 복자기나무, 부계꽃나무, 산겨릅나무, 시달나무, 염주나무, 함박꽃나무, 자작나무, 망개나무, 가침박달, 쉬땅나무, 붉은인가목, 풀또기, 백당나무 등을 들 수 있다. 거제수나무는 가로로 종잇장처럼 벗겨지는 백색 또는 갈색을 띠는 수피가 아름다워 유도식재 및 악센트식재를 할 수 있다. 야광나무는 5-6월에 피는 흰색 꽃과 9-10월에 익는 빨간 열매가 아름다우며, 기조식재, 악센트식재로 이용된다.

매발톱나무은 4-5월에 피는 황색꽃이 아름답고 소지에 3개로 갈라진 가시가 있고 경계식재로 이용되고 전정에 강하여 주연부식재, 악센트식재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스라지는 4-5

월에 만첩하는 꽃의 관상가치가 매우 높아 정원수로 적합하며, 악센트식재로 활용하면 좋다(식재기법 해설:「조경수」2000 9/10 p18 참조).

### 3. 유명한 온대중·북부 기후대의 조경수종

현재 생산이 안 되거나, 소규모로 생산되는 수종 중 조경용으로 활용가치가 높고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수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낙엽활엽교목

##### (1) 비술나무(Ulmus pumila)

###### ■생태적 특성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란다. 일조량이 풍부한 곳을 좋아하며 적윤지의 토양에 적합하다.

###### ■용도 및 유망성

녹음수로 전통적으로 이용하였으나, 조경용으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수관폭이 넓

고 아름다워 공원이나 대규모 조경단지의 기조식재, 녹음식재로 이용이 가능하다.

#### (2) 마가목(Sorbus commixta)

###### ■생태적 특성

적윤지에서 잘 자라며, 공해에 잘 견디며, 이식은 어렵다. 뿌리, 줄기의 연결 부분이 햇볕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한다.

###### ■용도 및 유망성

5-6월의 흰색꽃과 10월에 결실하는 빨간 열매는 나무 전체를 장식하여 매우 아름답고, 잎이 다 지고 난 후에도 열매가 그대로 달려 있어 악센트식재, 유도식재에 이용할 수 있다.

#### (3)아그배나무(Malus sieboldii)

###### ■생태적 특성

추위에 아주 강해 우리나라 전역 어디든 가리지 않고 식재가 가능하다. 토양조건을 별로 가리지 않고 잘 자라며, 유기질이 풍부하고 별이 좋은 곳에 심어야 꽃과 열매가 풍성하다.

###### ■용도 및 유망성

5월에 피는 흰꽃과 9-10월경에 붉게 익는 열매의 관상가치가 높아 기조식재, 악센트식재, 경계식재로 이용할 수 있다.

#### (4) 시달나무(Acer tschonoskii var. rubripes)

###### ■생태적 특성

건조에 강한 편이며, 적윤지의 비옥한 토양이 적당하다.

###### ■용도 및 유망성

회색의 수피와 자주색의 소지, 녹색의 잎이 조화를 잘 이루며 단풍이 아름답다. 악센트

식재, 경계식재 또는 단식이 적당하다.

(5) 귀룽나무(*Prunus padus*)

■ 생태적 특성

그늘진 곳에서 자라고, 수분이 많고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공해에 강하고 이식은 보통이다.

■ 용도 및 유망성

5월에 개화하는 흰색꽃과 6-7월에 검고 둥글게 맺히는 열매의 관상가치가 높고 대기오염에 강하다. 가로수식재, 녹음식재로 적합하다.

2) 낙엽활엽관목

(1) 개느삼(*Echinosophora koreensis*)

■ 생태적 특성

햇볕이 드는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고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과 바닷가, 도심지에서도 생육이 왕성하다. 이식은 용이하나, 내공해성은 보통이다.

■ 용도 및 유망성

5월경 황색의 꽃이 피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비탈면 주변의 악센트식재에 적합하다.

(2) 흰말채나무(*Cornus alba*)

■ 생태적 특성

햇볕이 잘 드는 곳의 양지에서 잘 자라고 산성토양 및 대기오염에 강하다. 적윤지의 비옥한 토양에서 생육이 양호하다.

■ 용도 및 유망성

붉은 줄기가 아름답고 열매가 희다. 지엽이 치밀하고 전정

에 강해 경계식재, 주연부식재에 적합하다.

(3) 쉬땅나무(*Sorbaria sorbifolia* var. *stellipila*)

■ 생태적 특성

습한 곳에서 잘 자라고 pH6-8의 중성토양을 좋아한다. 바람과 공해에 강한 편이고 이식이 용이하다.

■ 용도 및 유망성

6-7월경 원추형의 흰색꽃이 가지 끝에 달려 아름답다. 악센트식재, 지피식재, 주연부식재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붉은인가목(*Rosa marretii*)

■ 생태적 특성

능선부의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며, 습기가 많고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 용도 및 유망성

조경용으로는 거의 개발되지 않는 수종으로 5-6월에 피는 붉은 꽃과 9-10월에 익는 붉은 열매의 관상가치가 높아 악센트식재, 경계식재로 이용가치가 높은 식물이다.

(5) 풀뜨기(*Prunus triloba*)

■ 생태적 특성

일조량이 풍부한 곳에서 생육이 왕성하며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 용도 및 유망성

4-5월에 피는 분홍색의 겹꽃과 8월에 붉은 익는 열매의 관상가치가 매우 높다. 주로 정원수로 이용하고 악센트식재하면 좋다.

(6) 매자나무 (*Berberis amurensis*)

■ 생태적 특성

이식이 용이하고 음지, 양지에서 모두 비교적 잘 자란다. 환경오염이 심한 공간이나 도심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

■ 용도 및 유망성

다복한 수형과 잎겨드랑이에 달리는 샛노란 꽃이 아름다워 악센트식재에 이용하며, 전정에 강하므로 주연부식재, 경계식재에 이용이 가능하다.

(7) 댕강나무 (*Abelia mosanensis*)

■ 생태적 특성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생육이 좋으며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 용도 및 유망성

5월에 개화하는 흰색꽃과 다복하고 지엽이 뻑뻑한 수형이 아름답다. 악센트식재, 경계식재에 이용한다.

3) 상록침엽교목

(1) 전나무(*Abies holophylla*)

■ 생태적 특성

서늘하고 다습한 고산지대에 자란다. 강한 햇볕에서는 생육이 불량하며 공해에 상당히 약하다. 이식은 보통이나 되도록 휴면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용도 및 유망성

수직적인 수형이 아름다워 도시의 외곽지 또는 공해의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는 녹음수나 경관식재, 기초식재, 악센트식재로 이용할 수 있다. **조경수**